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믿음

(욥기 3:1~26)

1.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2.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3.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4.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5.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 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오늘 말씀 중심으로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믿음'
이제까지 우리가 믿음과 기쁨을 언제나 연결시켜서 구약의 말씀을 생각해왔습니다. 제1계명의 내용도 깊게 들여다보면 신의 존재가 궁극적인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다고 믿어지는 대상으로 이해함이 성경과 부합하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욥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죽음을 기쁨으로 동경합니다. 21~22절을 보면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라고 했습니다. 기쁨이라는 말이 무덤과 연결이 된 것을 알 수 있는데, 도대체 욥이 생일을 저주하고 죽음을 동경하며 목숨을 탄식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욥은 하나님께서 주재하시는 천상회의에서 특별히 이름을 거명하여 칭찬하신 자입니다. 욥의 하나님 경외가 온전하며 정직하다고 자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경외가 온전하고 정직한 욥과 같은 자에게서 생일을 저주하고 죽음을 동경하며 목숨을 탄식하는 말이 나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욥에게 주어진 환란의 극심함을 우리가 고려하더라도 이해하기 힘든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욥기서의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을 앞당겨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욥기 42장 5~6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이것을 볼 때 욥은 하나님을 볼 수 없었고 단지 귀로 듣기만 했던 때에도 하나님을 온전하고 정직하게 경외하였다는 말이 됩니다. 아직 하나님을 뵙지 못하고 귀로 듣기만 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가운데 온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했음을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욥의 하나님 경외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질문이 생깁니다. 온전함은 하나님께 마음을 다 쏟아 붓는 것이고, 정직함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직선관계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신앙을 가진 욥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왜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고백을 하지 못한 것일까요?
하박국 선지자는 욥 못지않은 환란을 느낄 때에 욥과는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을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므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라고 했습니다. 나라가 진멸될 상황을 예견하며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면서 무서운 고통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곧 이어 17~18절에서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이야 말로 하나님 경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욥에게는 이런 식의 고백이 보이지 않습니다. 욥이 당하는 극도의 고통을 이해한다고 할지라도 의인으로 칭함 받은 사람치고는 이해하기 힘든, 생일을 저주하고 죽음을 동경하며 살아있음을 탄식하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을 알기 위해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던 신앙상태를 알아볼 필요가 있고, 본문에서 말하는 생일을 저주한 상태가 왜 믿음이 되는지를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앞서 본 1장에서 욥에게 재난이 닥쳤을 때에 욥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건강을 잃었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욥이 우리와 다르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집 밖으로 나가면 모든 영역에서 교통법규를 지켜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욥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적 통치 내에 수없이 많은 대상들 중에 자신 또한 다스림을 받는 피조물의 하나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작은 일이든 큰일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한 신앙입니다.

자녀 열 명이 강풍에 기둥이 무너지며 다 죽었으니 날씨 탓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종들이 자녀들을 지키지 못했음을 탓할 수도 있었을 것이지만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데려가셨다고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의 대상으로 자기를 파악한 것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으로부터 생각을 발전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며 살지 않느냐는 반문을 하실 수도 있지만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만약 자식이 죽는 상황을 대한다면 자녀가 죽은 사회적 이유와 문제를 찾을 것입니다. 혹은 나의 어떠한 잘못에 의해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생각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돈이 안 벌려서 사업이 망할 위기에 처했다면 욥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업을 망하게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우리는 사업이 망해가는 상황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한 채로 하나님을 찾으려 합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눈앞에 보이는 사건이 먼저 들어오고 판단이 이루어진 후에야 하나님께로 나가서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욥은 무조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특별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욥은 자녀가 죽고 재산이 없어지고 건강이 상해도 그 상황을 개선시키고 반전시키려는 생각이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사건을 우선 판단하고 그 해결을 하나님께 간구하려 합니다. 욥은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판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수하시거나 계산을 잘못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실수로 재앙을 주셨습니다.”라고 할 수 없음에도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마치 하나님이 크게 잘못했거나 졸기라도 하셨다는 듯이 여깁니다. 혹은 하나님이 모르는 사이에 인가하지 않으신 일이 내게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을 깨우려고 소리치며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인정한다면 내게 주어진 상황들에 대해서 발전과 변화의 필요가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신다고 해서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처럼 저주도 주실 수 있지 않겠냐고 여겼던 것이 욥이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귀로 듣고만 있었을 때의 신앙이었다고 욥은 고백합니다. 우리는 귀로 듣고만 있었던 상태의 욥의 신앙을 따라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비교를 해봅니다. 학자들은 욥을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대의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욥기서에 나오는 용어나 배경이 BC 2000년 전의 아브라함 시대와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비교해보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처음 만날 때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시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듣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

고 마음에 하나님을 가짐으로서 관계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욥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나 마음에 하나님을 가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자기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권자로 받아들임으로서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굉장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진다면 삶의 개선이나 발전이나 수정을 위한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잘못하셨고 오해하셨고 실수하셨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부정하지 않는 한 몸에 악창이 날 때에도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고쳐달라는 기도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던 욥이 42장에 가서야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뵈옵나이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뵙고 개인적으로 갖기 전에 욥이 보이는 믿음의 상태는 곧 하나님을 가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직전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경외로 평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도 그랬지만 하나님을 보고 가질 수 있는 것은 결코 우리의 노력과 추구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가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듣기만 하였던 것은 욥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최우선적인 주권자로 인정함으로서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 눈곱만큼의 변화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은 주어진 환경의 변화를 바라며 기도할 여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치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상태에서 욥의 탄식은 결코 원망이나 바람일 수 없었습니다. 잃어버린 재산을 돌려달라는 바람이 아니었고, 죽은 자녀들에 대한 원망이 아니었으며, 건강회복에 대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통치자이자 주권자로서 인정했던 욥에게는 이러한 바람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욥은 이러한 마음을 가졌기에 14절 이후의 말씀에서처럼 은금이나 왕의 권세나 세상의 축복들을 받는 것조차 부질없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오히려 제일 좋은 것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고 이왕 태어났다면 지금 죽는 것이며, 제일 싫은 것은 지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준비상태로서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싶어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깊이 따지고 보면 아직도 돈 많이 버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며, 자녀들을 바라보며 그들로부터 기쁨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갖지 않은 상태를 죽음보다 못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갖지 못하는 상태, 귀로는 들으면서도 보지 못하는 상태를 죽는 것보다도 못한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가장 탄식할 일이라고 보는 것을 사탄은

가장 두려워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면서도 이 세상에 대한 의욕이 충만한 상태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상태입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모르는 상태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면서도 욥과는 다르게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어 하는 의욕으로 가득 차 있다면 사탄이 제일 기뻐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주권자이시며 창조주이심을 인정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갖지 못한 상태라면 생일을 저주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죽음을 동경하는 것이 의이고 살아있음을 탄식하는 것이 하나님 경외가 됩니다. 하나님을 못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취할 수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욥의 신앙은 아직 하나님을 갖도록 허락받지 못한 상황에서 고난을 통하여 최고의 경지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못 가질 바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편이 좋았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디에 버리셨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고 계시고 아버지로 인정하고 계시고 실제 아들이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버림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질 수 있는 상태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은 저주의 상태로 떨어지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저주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받은 저주의 자리는 곧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그토록 두려워하시고 무서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하나님을 가지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에 대한 의욕과 희망에 부풀어서 살아가는데 이것을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상태이며 믿음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못 가졌다면 죽음을 동경하는 것이 믿음이고, 생일을 저주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돈을 몇 백억을 가지더라도 하나님을 못 가질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여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녀들이 서울대학에 들어가서 판검사가 되고 의사가 되어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갖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여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못 가질 바에는 내 생일조차 저주나 받으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욥이 생일을 저주한 마음을 십자가를 통하여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못 가질 바에는 마치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십자가를 붙잡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길을 따라서 마음을 아버지께로 보내는 고백이 십자가 생활화입니다.

욥의 신앙이 놀랍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을 보고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셔야만 합니다. 욥은 그 한계 안에서 보일 수 있는 최고 경지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못 가질 바에는 은금도 필요 없고 권력도 왕의 자리도 필요 없고 생일조차도 저주스러울 뿐이라는 신앙고백이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를 붙잡음으로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욥의 하나님 경외가 내 것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